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FinanceYahoo: 작년 미국 기업 발표 채용 숫자, 9년 만에 최저치
- Bloomberg: 미 소비자 부채 감소... 크레딧 카드 미지급액 급감으로
- WSJ: 12월 연준 의사록은 “연준 금리 그대로 유지 할 것” 입장
- Bloomberg: 보스턴 연준총재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천천히”
- Bloomberg: 필라 연준 총재 “금리 인하하겠지만 타이밍이 중요”

### [미국 금융]

- Bloomberg: 이임하는 연방거래위원장, “공격적인 조치 계속 필요”

### [물류]

- WSJ: 수요 줄어도 창고 임대 가격은 그대로
- Bloomberg: 미 부두 노동자 파업 없다... 고용측과 합의

### [오일]

- FinanceYahoo: 유가 상승... 재고 감소 등으로

### [인공지능]

- WSJ: 블랙스톤, AI 데이터 회사에 3억 달러 투자

### [IT보안]

- TechCrunch: VPN 보안 버그 악용해 회사 네트워크 해킹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메리칸 항공, 기업 고객 되찾는다
- CNBC: 아마존, 광고 비즈니스 확장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FinanceYahoo: US hiring announcements in 2024 lowest in nine years 작년 미국 기업 발표 고용 숫자, 9년 만에 최저치

- 작년에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고용 숫자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고용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 재취업 지원 서비스 회사인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작년에 회사들이 발표한 채용 계획 숫자는 76만9천9백53명으로 전년도보다 1.3% 줄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고용 숫자도 7천9백9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만1천6백21명보다 줄었다.
- 이 같은 고용 둔화는 작년에 일자리 증가가 줄어든 탓이다. 실업률은 작년 초 3.7%에서 7월에 4.3%로 올랐다가, 작년 11월에 4.2%에 머물렀다.

- 또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준다고 이번 조사 회사 부사장인 Andrew Challenger가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 **Bloomberg: US Consumer Borrowing Drops on Plunge in Credit-Card Balances**

### **미 소비자 부채 감소... 크레딧 카드 미지급액 급감으로**

- 작년에 크레딧 카드 미지급액이 크게 감소해 미국 소비자 부채가 작년 11월에 예상외로 감소했다.
- 연준이 어제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소비자 신용 부채는 10월에 조정치로 173억 달러였으나, 11월에 75억 달러 감소했다.
- 미지급 신용카드 금액과 재사용이 가능한 신용 대출인 순환 부채 (Revolving debt)는 작년에 137억달러 감소했다. 팬데믹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차량 구입과 학교 등록금 용자 같은 비순환 부채는 62억 달러 증가했다고 연준 보고서는 밝혔다.
-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은 차용 비용이 거의 20% 이상 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 속에서 지출을 위해 크레딧 카트에 더 많이 의존했었다.

Bloomberg 기사

## **WSJ: Fed Minutes Suggest Officials Will Hold Rates Steady for Now**

### **12월 연준 의사록은 “연준 금리 그대로 유지 할 것” 입장**

- 지난 12월 17일부터 양일간 열린 연준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가 예상보다 높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그들은 인플레이가 계속해서 연준의 목표인 2%로 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무역정책과 이민 정책 등의 영향 때문에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 19명의 많은 관리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했지만, 일부 관리들은 금리 유지를 선호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근소한 차이로 이뤄졌다.

WSJ 기사

## **Bloomberg: Fed's Collins Says Uncertainties Point to Slower Cuts in 2025**

### **보스턴 연준총재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천천히”**

- 보스턴 연준 총재인 Susan Collins는 미국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경제는 좋은 상황이지만 인플레이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다면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의 경제 진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자신이 당초 수개월 전에 선호했던 것 보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Harker Says More Rate Cuts Are Coming But Timing 필라 연준 총재 “금리 인하하겠지만 타이밍이 중요”**

- 필라 연준 총재인 Patrick Harker는 연준 관리들이 올해 금리를 인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 타이밍은 경제 상황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를 연준 목표인 2%까지 끌어내리는 데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그 진전 과정도 고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조하고 노동시장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여전히 우리는 정책 금리 하락 경로에 있다면서 이는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FTC’s Khan Urges Agency to ‘Stay Aggressive’ After She Goes 이임하는 연방거래위원장, “공격적인 조치 계속 필요”**

- 바이든 행정부가 곧 물러나는 상황에서 이임하는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인 Lina Khan은 “새로운 행정부가 계속 공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본인은 후임자와 많은 업무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32살 나이로 최연소 연방거래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에 반독점 관련 조치를 시도했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Warehouse Leasing Prices Are Holding Up Despite Declining Demand**

## 수요 줄어도 창고 임대 가격은 그대로

- 팬데믹 초기 창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 가격이 높아졌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임대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부동산 서비스 회사 Savills의 산업 연구 책임자 Mark Russo는 임대료가 5년 전보다 2~3배 오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서비스 회사 Cushman & Wakefield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 평균 임대료는 평당 피트당 10.13달러였다. 2023년 4분기보다 4.5%, 2019년 4분기보다 61% 상승했다.
- 일반적으로 3~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3%였다.
- 지난 2년 동안 창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Cushman에 따르면 미국 평균 창고 공실률은 2022년 말 3%에서 작년 4분기 6.7%까지 증가했다.
-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임대 결정을 내리는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신규 건물 건설 중단으로 인한 공급 제한 때문에 가격이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WSJ 기사

## Bloomberg: US Dockworkers, Employers Reach Deal to Avert Strike 미 부두 노동자 파업 없다... 고용측과 합의

- 미 부두 노동조합과 그들의 고용주인 해상 운송업체 및 터미널 운영업체 그룹이 새로운 노동 계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해안에 예고됐던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0월, 미국 부두 노조는 3일간에 파업 끝에 62% 임금 인상으로 고용측과 합의를 봤었다. 하지만 항만 자동화를 두고 양측은 다시 교착 상태에 들어갔었다.
-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측은 반자동 크레인 같은 특정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노조 일자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완전 자동화된 터미널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Bloomberg 기사

[오일]

## FinanceYahoo: Oil Advances as Dwindling Inventories Counter China Weakness

유가 상승... 재고 감소 등으로

- 유가가 상승했다. 트레이더들은 중국 경제의 약세와 단기 공급 리스크를 저울질하고 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74불 언저리로 상승했다. 유가는 유가 선물이 주요 기술적인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수요일에 1% 이상 상승했다.
- 올해 들어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재고의 지속적인 감소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예상될 수 있는 이란의 공급 리스크 때문이다. 또한 추운 겨울로 인해 이번 달 연료 수요가 상승했으며,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지난 2023년 8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 그런데 향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Standard Chartered Plc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으로 배럴당 5달러가 줄어든 87불을 예상했으며, 1분기 예상치도 7달러 낮은 82달러로 예상했다.
- 유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중국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수요를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차질을 빚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 [인공지능]

#### **WSJ: Blackstone to Make \$300 Million Investment in AI Data Company** 블랙스톤, AI 데이터 회사에 3억 달러 투자

- Blackstone이 대량의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AI 데이터 회사 DDN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 DDN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 정보를 관리·수집하는 컴퓨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DDN의 제품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 Blackstone 최고경영자 Bouzari는 DDN의 플랫폼은 기업이 AI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Blackstone의 투자로 DDN이 비즈니스 고객 기반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랙스톤은 DDN 외에도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QTS를 2021년 인수하고, Digital Realty와 70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계약을 2023년에 체결하는 등 AI 붐에 투자하고 있었다.

WSJ 기사

### [IT보안]

#### **TechCrunch: Hackers are exploiting a new Ivanti VPN security bug to hack into company networks**

#### VPN 보안 버그 악용해 회사 네트워크 해킹

- 미국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 Ivanti가 기업용 VPN의 취약점이 악용되어 자사 고객 네트워크가 해킹당했다고 경고했다.

- Ivanti는 무결성 검사(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보안 절차) 중 일부 고객 장비에서 해킹을 감지했고, VPN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사고 대응 회사 Mandiant는 이번 해킹과 관련해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스파이 그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Mandiant는 이번에 해킹을 시도한 그룹이 2024년에 Ivanti 고객 정보를 대규모 해킹하려던 그룹과 동일한 집단이라고 밝혔다.
- 보안 연구 기관 WatchTower Labs의 CEO Ben Harris는 고객들이 VPN 취약점을 알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와 미국 사이버 보안 기관 CISA도 관련 취약점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TechCrunch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Inside the American Airlines Campaign to Win Back Business Travelers**

##### **아메리칸 항공, 기업 고객 되찾는다**

- 아메리칸 항공은 기업 고객 여행 방식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서 작년에 15억 달러의 매출을 놓쳤었다. 아메리칸 항공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수익성이 좋은 고객 그룹인 미국 기업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메리칸 항공이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칸 항공은 일부 혜택을 복원하고, 파격적인 할인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 고객과의 관계를 해치는 중개업체를 없애기로 했다.
- 하지만 아메리칸 항공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메리칸 항공이 작년 컨설팅 회사 베인을 고용해 기업 고객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기업 고객들은 아메리칸 항공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WSJ 기사

#### **CNBC: Amazon aims to expand advertising business by letting retailers use its ad tools on their stores**

##### **아마존, 광고 비즈니스 확장**

- 아마존은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물로 성장했다. 아마존의 최근 분기 광고 수익은 143억 달러로 알파벳과 메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아마존의 광고 수익은 대부분 브랜드가 특정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스폰서 제품 광고에서 발생한다.
- 아마존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도 아마존의 광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은 오늘 목요일, Retail Ad Service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다. 아마존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때,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마존 광고 담당 부사장 Paula Despins는 “Retail Ad Service는 소매업체, 광고주, 고객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다. Retail Ad Service가 판매를 촉진하고 쇼핑 경험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트럼프 취임 코앞 글로벌 국채시장 매도세...미국 20년물 5% 찍어  
 주요국 국채금리 올라...미국 10년물 금리는 4.73%  
 크루그먼, 트럼프 정책 겨냥해 "광기 프리미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채 매도세가 심해지면서 국채 시장 '발작'(tantrum)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확실성,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5% 선을 한때 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